

# 전남 10명중 8명 농촌 거주... 한국인 학생 초월 학교도

광주·전남 다문화가정 2세 현황과 실제

## 언어·문화·사회적 편견은 심화 국가적 지원·사회적 배려 절실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인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은 다문화가정 2세들의 숫자가 1만 명을 돌파하면서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광주·전남은 1995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가정 2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2세들이 본격적으로 취학 연령에 접어들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미래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난해 말 현재 1만527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각각 2752명, 7775명의 다문화가정 2세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3699명(35.1%)은 광주·전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의 다문화가정 자녀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사회 생활의 관문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6800여명의 다문화가정 2세들은 대부분 미취학 아동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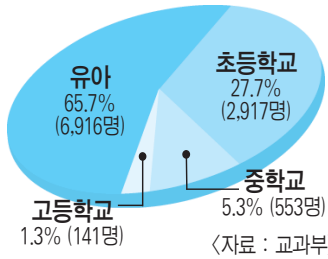
현재 전남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2892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91명(79.2%)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10명 중 8명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폐교 일로에 놓인 농촌학교의 '버림목'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 유치원 또한 다문화가정 2세들로 급속히 채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의 초·중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인 학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이 되면 전남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 학부모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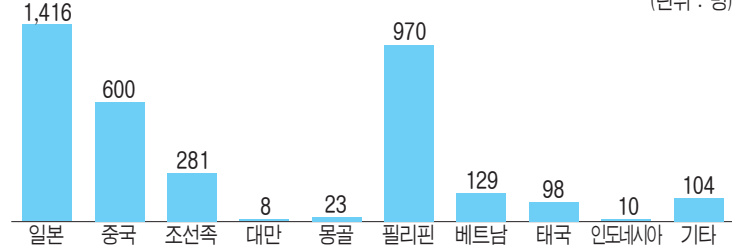
하지만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2세들의 교육적·사회적·개인적 문제들이 되레 심화되고 있다.

또 농촌지역은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유아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 광주·전남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대별 분포도



### ■ 광주전남 다문화 가정 학생·부모 출신국현황 (단위: 명)



유아들의 경우 한국 말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언어능력 저하는 취학 이후 학습능력에도 직접적 학교 생활에 적응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국인 어머니와 자신의 외모적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기피 현상도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피부색이나 말투, 어머니 출신국 등을 이유로 2세들을 무시하는 사회적인 편견도 여전하다.

심지어 일부 다문화가정 2세대 사이에선 언어·문화적인 차이나 편견에 의해 발달성 언어장애와 주의력 결핍 증세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데다 불법체류의 가능성도 높아 취학은 물론, 언어·문화적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적 다문화현상에 대한 맥락적 이해: 농촌지역 다문화적 현실에 대한 생애주기별 접근'에 따르면 도시와 군청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2세들의 교육 및 문화환경이 더디게나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에 비해 교육환경 자체가 크게 뒤떨어져 있어 다문화가정 2세들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학생은 광주와 여수, 순천 등 도시지역에 비해 부모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조차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별 특색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사회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이들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점에

서 뿌리깊은 순혈주의나 보수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선대 교육대학원 서현 교수는 "국제결혼 자녀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잠재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확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같은 또래들과 환한 표정으로 함께 달음박질하고 있다. 같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우리의 미래를 펼쳐갈 기본들이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다문화 가정 부모 10명중 4명 "교과 내용 이해할 수 없어 자녀 학업지도 못해"

11.5%는 "자녀 학교생활 어려움 겪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 10명 가운데 4명은 자녀의 학업지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를 꼽았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결혼 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에 담긴 취학 자녀를 둔 87개 다문화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다. '우리말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8.0%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주부와 가장이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읽고 해독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들을 위한 우리말 강좌 개설, 자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자녀의 학업을 지도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외국인 주부(39.0%)의 비율이 한국인 남편(13.3%)을 크게 앞섰다.

한국인 배우자는 자녀의 학업지도를 못하는 이유로 '생업에 바빠서'(60.1%), '지식수준이 낮아서'(19.1%),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13.3%)를 들었다.

또 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24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11.5%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이민자의 자녀(12.1%)가 남성 이민자의 자녀(5.3%)보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다문화가정 부부가 자녀 학업지도를 못하는 이유

| 구분      | 교과내용 이해못함 | 생업에 바빠서 | 낮은 한국어 수준 | 배우자가 바빠서 | 기타   |
|---------|-----------|---------|-----------|----------|------|
|         |           |         |           |          |      |
| 전체      | 37.1      | 30.3    | 18.0      | 5.6      | 9.0  |
| 성별      |           |         |           |          |      |
| 여성      | 39.7      | 28.2    | 19.2      | 3.8      | 9.0  |
| 남성      | 18.2      | 45.5    | 9.1       | 18.2     | 9.1  |
| 성별·거주지별 |           |         |           |          |      |
| 여성(도시)  | 44.3      | 27.9    | 14.8      | 4.9      | 8.2  |
| 여성(농촌)  | 23.5      | 29.4    | 35.3      | 0.0      | 11.8 |
| 남성      | 18.2      | 45.5    | 9.1       | 18.2     | 9.1  |
| 여성(조선족) | 41.0      | 38.5    | 10.3      | 2.6      | 7.7  |
| 여성(베트남) | 25.0      | 37.5    | 25.0      | 0.0      | 12.5 |
| 여성(일본)  | 50.0      | 16.7    | 16.7      | 16.7     | 0.0  |
| 여성(기타)  | 38.5      | 7.7     | 30.8      | 0.0      | 23.1 |
| 남성(일본)  | 37.5      | 12.5    | 50.0      | 0.0      | 0.0  |
| 남성(기타)  | 50.0      | 25.0    | 0.0       | 25.0     | 0.0  |
| 남성(조선족) | 12.5      | 62.5    | 0.0       | 25.0     | 0.0  |
| 남성(기타)  | 33.3      | 0.0     | 38.3      | 0.0      | 33.3 |

이밖에 다문화 가정은 자녀의 학교에 바라는 점으로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59.7%)을 첫 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 필요'(15.0%)를 들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상상 이상의 현실

# 보문

OK

## 2011 보문고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 2010년 10월 20일(수) ~ 2010년 10월 25일(월)

**01. 모집 인원 (전기모집, 남녀공학 8학급, 280명)**

| 정원내       | 정원외            |
|-----------|----------------|
| 일반전형 224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56명 |
| 5         | 국가유공자 8        |

**02. 지원자격** : 중학교 내신 석차 연명부 석차백분율 30% 이내 (사회적배려자, 정원외 전형은 내신성적 제한 없음)

**03. 선발방법** : 공개 추첨

**04. 전형일정**

| 구분                           | 일시                             |
|------------------------------|--------------------------------|
| 원서접수 (증빙서류 포함, 전형료 7,000원)   | 2010.10.20(수) ~ 10.25(월) 17:00 |
|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정원외전형 '단체' 합격자 발표 | 2010.11.5(금) 10:00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정원외 전형 면접       | 2010.11.8(월) 10:00             |
| 일반전형 공개추첨                    | 2010.11.10(수) 10:00            |
| 합격자 발표                       | 2010.11.10(수) 16:00            |
| 합격자 등록 기간                    | 2010.11.15(월) ~ 11.17(수)       |
| 추가모집 원서접수                    | 2010.11.15(월) ~ 11.19(금)       |
| 추가모집 합격자 등록                  | 2010.11.23(화) ~ 11.24(수)       |

\* 자세한 내용은 '보교 홈페이지'의 자사고 입학 안내, 를 참고하십시오. 위 전형 계획은 교육청 지침과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5. 보문인을 위한 획기적 장학 프로그램**

가. 입학 장학금  
1) 중학교 졸업 석차백분율 상위 3% 이내의 학생 - 3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2) 중학교 졸업 석차백분율 상위 5% 이내의 학생 - 1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3) 성적우수 장학금 (한배치고사 상위 5% 이내) - 1학기 수업료  
※ 공통요건: 반 배치고사와 학기별 성적이 상위 3%, 5% 이내 유지해야 함

나. 생활지원금  
1) 중학교 졸업 석차백분율 상위 5% 이내의 학생 - 매월 20만원씩 지급 (매 학기 성적 5% 이내 유지 조건)

다. 재학 중 장학제도(본교의 다양한 기준 장학제도)  
1) 학교장 장학금  
2)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연수비 지원

라. 졸업 후 장학제도  
1) 서울대 등 우수 대학에 진학한 경우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접수처 : 보문고등학교 행정실 (대표전화, 062-940-8800)**

01\_ 전국 최고의 실력있는 교사진 채용 (11학년도 국·영·수 위주의 16명 특별 채용)

02\_ 800명 규모의 최첨단 명품기숙사 원비

03\_ 전국 최상위 특선 재단의 획기적 장학 프로그램

04\_ 대학입시를 위한 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05\_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삼위일체 봉사활동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http://bomun.hs.kr